

종교를 넘어선 신념: '영성'을 주제로 한 2010년대 할리우드 영화 고찰

안 수 정
(가톨릭대학교)

◆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할리우드에서 영적 주제를 다루는 영화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이런 주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맥락을 밝히고, 이러한 새로운 흐름이 함의하는 바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교와 문화, 그리고 예술의 관계를 탐구한 신학자 킬리히와 종교현상학자 반 데르 레우후의 연구를 이론적 틀로 차용하였으며 이들의 관점을 근거로 영화매체에 나타나는 영적 주제의 의미를 풀어내고자 한다. 2010년대 이후 제작된 할리우드 영화 중에서 다각도로 영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을 추려보면 이들을 아우르는 몇 가지 공유점을 찾아낼 수 있다. 이 작품들은 관객에게 친숙한 대중적인 내러티브를 통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실존인물 혹은 실화 같은 리얼리티를 영화 속에 재현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성과 신빙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주인공들은 할리우드 수퍼 히어로의 전형성에서 탈피한 '승리한 패자'로 그려지며, 끊임없이 절대자에게 '질문하는' 인간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보여진다. 이런 특징을 분석해보면 할리우드에서 영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최근 작품들이 선교나 신앙을 넘어선 보편적인 신념과 가치의 문제를 형상화하면서 기존 종교 영화와의 차별화에 성공하고 있으며 관객과의 공감대를 확장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이런 분석을 통해 현대 과학과 지식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여전히 영적회복과 인간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으며 영화매체는 관객의 이런 욕구를 표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제어 : 할리우드, 영적주제 영화, 영성, 종교 영화, 사실주의, 대중적 내러티브

I. 들어가며

최근 할리우드에서 영성, 혹은 영적인 주제를 다룬 영화들('faith-based films')의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 분야 영화 제작의 '뉴웨이브(new wave)'라고 불릴 정도이다.¹⁾ 주지하다시피 신화적, 영적 주제는 텔레비전 드라마와 연예 프로그램,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 게임, 애니메이션에 이르기까지 현재 대중문화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 중에서도 영화는 오늘날의 대중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역이다.

'영성(Spirituality, 靈性)'은 "인간의 보편적 심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²⁾이 담겨있는 용어로서 그리스도교적 배경에서 유래된 개념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이르러 거의 모든 종교적 삶과 문화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영성'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 자본주의 사회와 문화에서 상품화되고 소비되고 있으며, 대중문화의 온갖 영역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의미의 과잉과 왜곡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³⁾ 따라서 그 정의와 범주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를 가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종교적 경험으로서의 '영성'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영성'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영성'이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의 객관적인 상황을 초월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현재의 자기 자신과 환경 너머를 보고, 현실을 뛰어 넘어 의미와 가치를 찾는 능력"⁴⁾을

1) Randall Colburn, "Can the New Wave of the faith-based filmmaking transcend propaganda?"

<http://www.avclub.com/article/can-new-wave-faith-based-filmmaking-transcend-prop-234051>. *AV Club*.

2) 신승환, 「현대철학에서 영성이해의 가능성」, 『가톨릭철학』 Vol. 25, 2015, 99쪽.

3) 위의 논문, 104쪽.

4) 도니 조하와 이안 마셜은 영성지능을 우리가 의미와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려할 때 사용하는 인간의 지능, 우리의 행동과 삶을 광범위하고 풍부한 의미의 맥락에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는 지능, 어떤 일련의 행동이나 삶의 경로가 다른 것보다 의미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지능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영성지능은 종교와는 관련이 없는 개념이며, 오히려 어떤 종교적 표현의 형태에도 우선하는 개념이라고 말한다. 도니 조하 & 이안 마셜, 『영성지능 SQ』, 조혜정 역, 룩스, 2000, 16-25쪽.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 '영성을 다루는 영화', 혹은 '영적 주제를 다루는 영화'는 영미권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faith-based film'에 해당한다. 이는 엄격한 장르적 구분을 넘어서 하나의 흐름을 포착하려는 시도이며, 이 범주에는 종교를 주제로 한 장르로서의 '종교영화(religious film)'나 '그리스도교 주제 영화(Christian-themed film)' 같은 하위 장르(sub-genre)에 속하는 작품들도 폭넓게 포함된다. 2010년대 들어와 특히 이런 영적 주제에 천착하는 콘텐츠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각각의 콘텐츠가 다양한 장르적 변화와 서사 전략을 보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⁵⁾ 할리우드가 글로벌 콘텐츠 생산의 주체로서 수용자인 전세계 관객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할리우드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흐름에 대한 근원적이고 통합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과 변화가 함의하는 바를 개별영화의 분석을 넘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할리우드에서 영적 주제를 다룬 다양한 작품들이 제작되고 관객들의 호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작품들이 뚜렷하게 종교적 주제를 다루었던 이전의 할리우드 영화들과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가? 나아가 오늘날 인간의 영적 측면, 근원적 실존에 관한 관심이 영화매체를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본고는 다각도로 영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그 경향을 함축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구의 텍스트는 2010년대 이후에 개봉된 할리우드 작품으로 제한하도록 한다. 각각의 작품에는 영적 주제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겠으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5) 그동안 영적인 주제를 다룬 대표적인 할리우드의 대작으로 <스타워즈>시리즈, <반지의 제왕>, <매트릭스>, <나니아 연대기>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영화들은 본고의 연구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2010년대 이후 할리우드에서 시간초월현상을 다룬 작품들을 분석한 김은경의 연구(「허버트 조지 웰스의 타임머신과 2010년대 할리우드 SF영화에 나타난 시간초월 양상 연구 - 소스 코드, 옛지 오브 투모로우, 인터스텔라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1(1), 2015, 4. 173-200쪽)는 직접적으로 영적 주제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SF영화의 시간초월과 시대성, 그리고 회복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연구의 관점과 폭넓게 공유되는 지점을 가진다.

특성들을 알아낼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의 논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종교와 문화, 그리고 예술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큰 틀에서 살펴볼 것이며, 이 논의를 바탕으로 영화매체에 나타나는 영적 주제의 의미를 고찰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주제를 다룬 영화들의 배경과 동인을 설명하기 위해 할리우드 영화사와 최근 영화 산업의 동향을 분석한 후에, 2010년대 이후 제작된 영화들이 공유하는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할리우드에서 이런 영적주제를 다루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II. 영화와 영적 체험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며,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
- 폴 틸리히

종교학자 M. 엘리아데에 따르면 “영화라고 하는 ‘꿈의 공장’은 무수한 신화적 주제들을 넘겨받아 사용한다. 즉 영웅과 괴물의 싸움, 가입식(initiation)의 투쟁과 시련, 전형적인 인물이나 형상(처녀, 영웅, 낙원의 풍경, 지옥 등)이 다 그런 것들”이다.⁶⁾ 엘리아데는 나아가 ‘종교적 인간’이었던 고대의 인간들이 근대가 되면서 세속화되고 비종교적 인간이 되었지만,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종교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종교적 인간으로서의 고대인의 실존은 인간적 존재양식에 국한되지 않은 열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세계의 일부가 그의 안에 살아 있다. 그런데 근대 이후 탈성화(脫聖化)된 시대가 되면서 세속화된 사람들의 대다수는 의식적으로 종교를 체험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능력을 상실했다. 엘리아데는 그러나 무종교인일지라도 그의 가장 깊은 존재 밑바닥에는 아직도 그 원시의 기억을 보존하고 있다고 말한다.⁷⁾ 이에 따라 현대인들에게도 종교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

6) M. 엘리아데, 『성과 속』, 이은봉 역, 한길사, 2014, 184쪽.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흔적을 남기며 특히 축제, 독서, 영화관람 등의 행위로 나타난다. 그러한 행위는 “낮선 시간의 세계”에 들어가서 현대인을 “개인적 시간에서 끌어내어 다른 리듬 속으로 통합시키고, 다른 ‘역사’ 속에서 살게 만든다”.⁸⁾ 영화를 통한 이같은 영적 체험은 존 리든(John C. Lyden)의 지적처럼 오늘날의 대중이 영화 관람 경험을 통해 “카타르시스, 리미널리티(Liminality) 또는 희생의 경험 속에서 의미나 목적, 구원 또는 의례적 충만감”⁹⁾을 표현한다는 주장과도 궤를 같이 한다.

엘리아데와 동시대를 살았던 반 데르 레우후는 ‘아름다움’(美)과 ‘거룩함’(聖)의 관계를 분석한 종교현상학자이다. 그는 예술은 본래 신성한 것이었으며, 세속화되고 절대적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종교와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말하며 예술과 종교가 ‘성스러움’의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고 지적한다.¹⁰⁾

신화 없이, 상징 없이, 언어와 울동과 음식의 옷을 입지 않고는 종교가 존재할 수 없다. 원시시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사람들이 종교라고 부르는가 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우리는 가시적인 것과 연관시키는 것을 거듭거듭 발견하게 된다. 이 물음에 대답은 결국 성스러운 대상, 성스러운 음식, 성스러운 행동, 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와 예술은 전적으로 같다.¹¹⁾

반 데르 레우후는 종교가 그 자신을 표현하려고 할 때 예술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聖)이 전체적 인간의 개념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술의 출발점도 몸과 영혼의 나눌 수 없는 통일성, 즉 전체적 인간으로서의 합일에 있기 때문에 예술

7) 위의 책, 184-190쪽.

8) 위의 책, 184쪽.

9) John C. Lyden, “Definitions: What is the subject matter of “religion and popular culture”?”, “ p. 16. in *The Routledge Companion to Religion and Popular Culture*, eds. John C. Lyden and Eric Michael Mazur, 2015.

10) 반 데르 레우후, 『종교와 예술: 聖과 美의 경계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윤이흠 역, 열화당, 1996, 14-16쪽.

11) 위의 책, 71쪽.

과 종교가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춤, 드라마, 건축, 회화 등 예술의 방대한 영역들과 종교와의 연계성을 분석하면서 삶을 파편적, 혹은 부분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한 덩어리로 인식하는 “삶의 통일성”을 강조한다.¹²⁾ 그에게 있어 종교는 삶의 통일성이며 이런 점에서 예술과 종교는 같다. 또, 그의 입장에서 아름다움을 통한 기록함의 표현은 백일몽 같은 몽상이 아니라 현대인이 발견할 수 있는 실제이다. 즉 예술은 삶의 모방도 아니고 동일화도 아닌 삶의 형식이며 이런 맥락에서 표현 형식으로서의 예술과 종교는 둘 다 “삶의 깊이”를 발견하는 통로가 된다.¹³⁾

현대 신학의 큰 기둥이자 철학자인 폴 틸리히의 ‘문화신학’은 오늘날 영화로 대표되는 대중문화와 ‘영적 주제’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관점을 제시한다. 틸리히는 인간의 문화 활동의 모든 구체적 영역들이 넓은 의미의 종교적 차원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 그는 종교가 인간 정신의 특수한 기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영성 즉 영적측면을 신비주의적이고 이상스러운(ideal) 세계로 그리는 통상적인 개념을 거부하고 나아가 종교를 인간의 ‘심층의 차원(depth dimension)’이자 ‘궁극적인 관심(ultimate concern)’이라고 말한다. 틸리히가 말하는 심층의 차원이란 무엇인가? 그에게 ‘심층(depth)’은 종교적 차원, 즉 인간 정신생활의 궁극적이고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것을 의미한다.¹⁴⁾ 그렇다면 궁극적인 관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인간정신의 모든 창조적인 기능 속에서 나타난다. 궁극적 관심은 인간 정신의 심미적 기능 속에 궁극적인 의미를 표현하려는 무한한 감정으로 나타난다. 이는 인간의 영적측면을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영적 측면은 곧 존재의 본질이라는 의미가 된다.¹⁵⁾ 그러나 인간 존재의 내면적 본질을 회복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험난한 과정이고 진정한 의미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틸리히의 입장이다.

12) 이창익, 「예술이라는 종교의 미디어: 반 데르 레이우의 예술신학」, 『종교와 문화』 27권, 2014, 86-89쪽.

13) 반 데르 레우후, 앞의 책, 137쪽.

14) 폴 틸리히, 『문화신학』, 남정우 역, 대한기독교서회, 2002. 17-18쪽.

15) 위의 책, 13-16쪽.

궁극적 관심으로서의 종교는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의 실체이며, 문화는 종교의 기본적인 관심사가 표현되는 전체의 형식이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며,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¹⁶⁾

틸리히에게 종교는 원래 문화와 일체이다. 이 둘은 원래 완전히 결합되어 있어야 하나, 이 둘 사이의 분쟁의 결과로 종교가 압박받고 문화가 파괴되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인간 활동의 수평적 축이 문화라면, 인간 활동의 수직적 축이 종교에 해당된다.¹⁷⁾ 이 관점에서 볼 때 양자가 분리되어 있을 때 문화의 세속화가 일어날 수 있다. 즉 문화에 궁극적인 의미가 은폐될 때 세속화, 비속화가 일어나며 문화는 숭고함을 상실하게 되며 무의미하고 공허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와 종교는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양자 모두 넓은 의미의 종교, 즉 궁극적 관심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⁸⁾ 틸리히는 인간은 문화적 형식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문화적 형식들을 통하여 그 자신의 이해, 관심, 불안, 희망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모든 문화 -비록 철저히 세속적 문화라고 해도- 의 밑바닥에는 종교적 관심이 들어있으며 이런 점에서 문화는 다름 아닌 종교적 관심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한다.

틸리히는 문화와 종교가 인간정신 생활의 궁극적 의미와 목적을 지향하는 궁극적 관심의 경험, 또는 거룩함에 근거하고 있음을 그의 신학 전반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문화와 종교에 관한 그의 관점은 오늘날 우리가 대중문화, 즉 영화의 형식을 빌어 인간의 영적 본질과 근원적 실존을 회복하려는 현상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주장에 근거하여 우리가 현대인의 '영성'을 영화와의 상호작용에서 이해해본다면, 보다 보편적 맥락에서 문화 형식으로서 영화가 시도하는 인간의 본질과 초월적 실체에 대한 탐색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거룩함'을, 그리고 '구원'을 탐구할 수 있을 것인가? 앞서 언급한 종교현상학자 반 데르 레우후는 “종교와

16) 위의 책, 52쪽.

17) 임영금, 「폴 틸리히의 문화의 신학」, 『문화와 신학』 제4집, 2009, 143쪽.

18) 폴 틸리히, 앞의 책, 2002, 16쪽, 52쪽.

예술은 무한에서 교차하는 평행선이고, 오직 신(神) 안에서만 서로 만난다”고 주장한다.¹⁹⁾ 이 맥락에서 본다면 대중문화, 특히 영화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경험과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가톨릭사제이자 사회학자인 앤드류 그릴리는 영화라는 매체의 특별한 능력은 그것이 다른 예술양식이 따라가기 힘든 탁월한 “성사적(聖事的) 예술(sacramental art)”이라는 점에 있으며, 순수예술이든 대중예술이든 영화처럼 신의 현존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매체는 없다고 말한다.²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영화는 우리의 현실을 피상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중심 가까이에서 삶을 표현하며 우리의 가장 깊은 자아를 보여주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²¹⁾

시나리오 작가이자 영화감독인 폴 슈레이더²²⁾는 ‘초월적 스타일’이란 “본질적으로 초월적이거나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초월에 접근하는 방식을 재현”한다고 정의한다.²³⁾ 이 말은 영화가 삶을 깊이 탐구할 때 그 자체로 삶과 인간 본연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영화를 통해 영적보편성을 추구했던 슈레이더의 관점은 영화감독 마틴 스콜세지와 동일한 맥락을 보여준다. <택시 드라이버>(1976)와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1988)과 같은 영화에서 슈레이더에게 시나리오를 맡겼던 스콜세지 감독은 영화감독으로서 교회를 상대한 자신의 경험을 회고한다. 그는 어릴 때 사제가 되고 싶었지만 “나는 곧 나의 진짜 소명, 나의 진짜 부르심이 영화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정

19) 반 데르 레우후, 앞의 책, 145쪽.

20) 원문은 “the film is a sacramental art par excellence; either as a fine or lively art nothing is quite so vivid as film for revealing the presence of God.” Andrew M. Greeley, *God in Popular Culture*, Thomas More, 1988, pp.249-251.

21) 로버트 존스톤, 『영화와 영성(Reel Spirituality)』. 전의우 역. 서울: IVP, 2003, 140쪽.

22) 폴 슈레이더는 미국사회가 안고 있는 병폐와 상처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개인의 뒤뜰린 내면세계를 그린 작가이다. <아메리칸 지골로>(1979)나 <갯피플>(1982)의 감독인 동시에 시드니 폴락, 브라이언 드 팔마와 마틴 스콜세지 같은 거장 감독의 작품을 쓴 시나리오 작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가 1972년 쓴 『초월적 스타일: 오즈, 브레송, 드레이어 (Transcendental Style: Ozu, Bresson, Dreyer)』은 영화를 통해 영적보편성을 추구했던 그의 관점을 잘 드러내는 책이다.

23) Paul Schrader, *Transcendental Styl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3.

리한다.

나는 사실 교회와 영화,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충돌한다고 보지 않는다. 분명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나는 교회와 극장 사이에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고 본다. 둘 다 사람들이 모여 공통의 경험을 나누는 곳이다. [...] 그리고 나는 영화가 설령 신앙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더라도, 영화에는 영성이 있다고 믿는다. [...] 마치 영화가 공통의 무의식에 대한 오래된 탐구에 해답을 제시하는 것 같다.²⁴⁾

스콜세지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소명이 서로 갈등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최근작 <사일런스>(2016)를 초기 작품인 <비열한 거리>(1973)이나 <성난 황소>(1980) 같은 작품과 비교 하면서, 자신이 이런 작품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구해오던 주제가 결국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사일런스>는 일본 작가 엔도 슈사쿠의 원작 소설 <침묵>(1966)을 원전으로 한 영화로 대강의 줄거리는 이러하다. 17세기 그리스도교 박해 시대에 예수회 사제 로드리게스는 은사였던 페레이라 신부가 일본 나가사키에서 선교를 하다가 고문을 당해 결국 배교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동료 가르페 신부와 함께 일본으로 떠나지만 일본 신도들의 비참한 현실과 참혹한 박해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결국 배교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 영화는 갱스터와 필름 느와르 장르를 혼합하여 폭력으로 자신의 주제를 이야기했던 앞의 두 작품과는 매우 상이해 보이는 작품이다. 그러나 스콜세지에게 “폭력과 거룩함이란, 하나이되 멀리 떨어진 뿌리”에서 나왔으며 그에게 종교란 “천사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²⁵⁾이다. 그는 또 구원을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감수하며 살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의 삶에

24) 로버트 존스톤, 앞의 책, 139쪽에서 재인용. 굵은 글씨는 필자 강조. 스콜세지의 이 글은 Clive Marsh와 Gaye Ortiz가 편집한 *Explorations in Theology and Film: Movies and Meaning*, Oxford: Blackwell, 1997, p.ii에서 책의 제사(題詞)로 사용되었다.

25) 안토니오 스파다로, 「마틴 스콜세지와 인터뷰 («SILENCE»). INTERVISTA A MARTIN SCORSESE」 김숙희 역, 『치빌타 카톨리카(La Civiltà Cattolica)』 한국어판, 2017.3.2. 발간. e-Book, <http://laciviltacattolica.kr/0201-1/>

긍정적인 힘이 되는 것”²⁶⁾이라고 폭넓게 정의한다. 이런 맥락에서 <사일런스>와 <비열한 거리>, <성난 황소>는 모두 같은 지점을 바라보는 영화이다. 예컨대, <사일런스>에서 가장 유약하고 비열하며 자기 자신과 가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인 기치지로는 <비열한 거리>의 자니 보이와 같은 인물이며 두 사람 모두 영화 안에서 구원받기 힘든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나 스킨세지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니보이와 기치지로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이 둘에게서 파멸도 오지만 동시에 구원도 오기 때문”²⁷⁾이라고 말한다. 영화와 영적 주제에 대한 슈레이더와 스킨세지의 관점을 통해 우리는 영화라는 특별한 매체의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관객과 영적 주제를 연결해주는지, 그리고 영화를 통해 종교와 상관없이 관객들이 어떻게 삶의 본질적인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Ⅲ. 할리우드 산업과 영적 주제 영화

1. 할리우드 종교영화 제작의 역사

영적 주제를 다룬 영화들은 영화탄생 이후 꾸준히 제작되어 왔다.²⁸⁾ 특히 성경은 초기 영화시대부터 영화를 지배하고 있던 주제 중 하나였다. 1897년 <수난(La Passion)>²⁹⁾은 예수의 생애와 성서의 내용을 영상화한 최초의 영화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성경과 예수의 삶을 소재로 한 성경서사극(biblical epic)³⁰⁾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졌다. G.W.그리피스의 <인톨러런스>

26) 안토니오 스파다로, 「마틴 스킨세지와와의 인터뷰 (원문 «SILENCE». INTERVISTA A MARTIN SCORSESE)」.

27) 위의 인터뷰.

28) 할리우드 영화사를 통틀어볼 때 영적 주제를 다룬 영화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2010년대 이전에 영적 주제 영화들에 대한 역사적인 조망은 종교 영화의 역사를 중심으로 간략히 다루기로 한다.

29) 프랑스의 레아르가 만든 5분 가량의 단편 무성영화로 알려져 있다.

30) 성경을 소재로 한 대규모 서사극을 ‘성경서사극(biblical epic)’이라는 장르로 나

(Intolerance, 1916)와 <구유에서 십자가까지>(1919, 시드니 올콧)는 영화 역사의 초기에 속하는 무성영화 작품들이며³¹⁾ 1920년대에는 <십계>(1923)³²⁾와 <왕중왕>(1927)³³⁾과 <벤허>(1925) 등의 작품이 제작되었는데 세 작품 모두 1950년대와 60년대에 다시 만들어졌다. 이는 이 시기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졌던 성경서사극이 오늘날 블록버스터 영화 못지않은 인기 있는 장르였음을 보여준다. 1950년대는 할리우드 종교영화의 전성기라 부를만한 시기로 <퀴바디스>(1951, 머빈 르로이), <성의>(1953, 헨리 코스터), <십계>(1956, 세실 B. 데밀)는 물론 지금까지 가장 성공한 종교영화로 알려져 있는 <벤허>(윌리엄 와일러, 1959)³⁴⁾가 제작되었다. 사실 스펙타클³⁵⁾ 요소와 성경 서사의 결합이 만든 이런 성공은 컬러 TV의 등장으로 위기에 빠진 당시 영화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였다. 1960년대는 거대한 스펙타클을 보여주는 두 편의 영화 <왕중왕>(1961, 니콜라스 레이)과 <위대한 생애>(스티븐 스티븐스, 1966)가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한편 이 시기에 만들어진 <마태복음>(파올로 파졸리니, 1964)³⁶⁾ 같은 작품은 성경을 소재로 했지만 당시 주류 영화와는 거리를 둔 유럽의 작가주의 영화로서 현재까지 예수 이야기를 성경 그대로 가장 잘 표현한 작품으로 꼽힌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할리우드 영화 산업 전반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스타워즈>(1977, 조지 루카스)나 <조스>(1978, 스티븐 스피버그) 같은 새로운 영화들이 등장했고

누기도 한다. 세실 B. 데밀은 1920년대 이 분야를 대표하는 감독이다.

- 31) 1935년 예수 이야기를 소재로 한 프랑스 감독 줄리앙 뒤비비에의 <골고다>는 예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최초의 유성영화이다. 미국에서는 1937년에 개봉되었다.
- 32) 무성영화 <십계>는 1956년에 유성영화로 다시 만들어졌고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버전은 유성영화 버전으로 두 작품 모두 세실 B. 데밀 감독 작품이다.
- 33) 1927년 작품의 감독은 세실 B. 데밀, 1961년은 니콜라스 레이이다.
- 34) <벤허>는 이 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1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 35) 거대한 세트, 다수의 엑스트라 및 당시 '트릭'이라고 불렸던 특수촬영 등이 스펙타클 영화의 특징들이다.
- 36) 이 작품은 제24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마르크 스즈의자이자 무신론자인 파졸리니 감독의 좌파 정치적 성향과 필모그라피를 고려했을 때 이 영화에 대한 종교계의 호평은 매우 흥미롭다. 이 영화는 1994년 교황청이 선정한 <위대한 영화 45편>에 포함되었으며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파졸리니의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만든 복음영화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인정하였다.

이때부터 성경서사극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은 시들해졌다. 대신 이 시기에는 뮤지컬을 원작으로 한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노먼 주이슨, 1973)³⁷⁾와 <갓스펠>(데이비드 그린, 1973)이 제작되어 인기를 끌었고 <나자렛 예수>(프랑코 제피렐리, 1977)³⁸⁾가 개봉되었다. 198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은 <미션>(롤랑 조페, 1986),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마틴 스콜세지, 1988)과 <로메로>(1989, 존 듀이건), 그리고 <몬트리올 예수>(1989, 드니 아르캉) 등을 들 수 있다.

할리우드에서 이렇게 성경과 예수의 생애를 소재로 한 영화가 시대별로 끊이지 않았던 것은 종교적 이유와 함께 상업적인 이유가 크다. 성경은 서구 문화권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익숙한 이야기이다. 관객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며 이 때문에 흥행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 게다가 이런 익숙한 서사가 스펙타클의 요소와 결합하면서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당시 MGM, 유니버설, 폭스와 파라마운트 등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이 작품들은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 배급되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할리우드와 종교와의 관계가 항상 우호적이지는 않았다.³⁹⁾ 종교계에서 볼 때 할리우드는 전통적 가치는 물론 그리스도교적 가치를 위협하는 주체로 여겨졌다. 그래서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종교 영화, 더 넓게는 영적 주제를 다룬 영화들은 종교계로부터 자주 비판을 받았다.⁴⁰⁾ 앞에서 언급한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같은 영화는 성경을 왜곡해서 예수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교회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⁴¹⁾

37) 1971년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을 원작으로 한 영화이며 <갓스펠>은 스티븐 슈워츠의 뮤지컬이다.

38) 이 영화는 러닝타임이 6시간이 넘는 371분이다.

39) John C. Lyden, *The Routledge Companion to Religion and Popular Culture*, Routledge, 2015, p. 38.

40) 로버트 존스톤(R. Johnston)은 『영화와 영성(Reel Spirituality)』에서 미국적 맥락에서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교가 할리우드를 대하는 방식을 다섯 가지 유형 즉, ‘회피, 경계, 대화, 수용, 신적인 만남’으로 구분했다. 로버트 존스톤, 앞의 책, 53-55쪽.

41) 두 작품 모두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뮤지컬 장르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는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영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은 실험적인 스타일로 인해 흥행에 실패했다. 우리나라

2. 2000년대 이후의 영적 주제 영화와 산업적 변화

앞서 설명한 다수의 작품들은 각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며 규모와 주제, 대상관객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크게 볼 때 2000년대까지 할리우드에서 영적 주제를 가진 영화들을 만드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소규모 영화사에서 종교적 정체성이 뚜렷한 저예산 독립영화 작품⁴²⁾을 제작하거나 메이저 영화사에서 거액의 예산을 들여 대형 서사물을 제작하는 방식, 그리고 작가주의 계열의 작품이 독립적으로 제작되는 방식이다. 오래도록 이어지던 이러한 제작 관행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2000년대 중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대성공에 힘입은 바 크다. 이 영화는 1980년대 이후 할리우드에서 이미 사장된 장르로 여겨졌던 종교 영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영화로 평가된다. 호주의 배우 출신 멜 깁슨 감독이 개인 자금까지 동원해서 어렵사리 제작을 마친 이 영화는 한동안 배급사를 구하지 못해서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마침내 2004년에 개봉되었는데 단 3천만 달러의 제작비로 전 세계 흥행 수익 6억 1,189만 달러를 벌어들였다.⁴³⁾ 반유대주의와 지나친 폭력성으로 인해 수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이런 논란은 오히려 전세계적인 흥행돌풍에 도움이 되었다. 이 때문에 청소년 관람 불가인 R등급을 받았으나 예수가 십자가에 오르기까지의 수난을 극사실주의적으로 다루면서 할리우드 종교 영화사에 하나의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된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예기치 않은 대성공은 영적인 주제에 대한 동시대 관객의 잠재적인 기대와 욕구가 얼마나 큰 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할리우드의 메이저 스튜디오는 틈새시장의 가치를 깨닫고 뒤늦게 이 분야

에는 보수적인 개신교계의 반대로 영화가 제작된 지 4년이 지난 2002년에 짧은 기간 동안 개봉했다. 개봉 당시 세간의 논란과는 별개로, 스펀세지 감독은 이 영화로 1989년의 제61회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에 올랐다.

- 42) 소규모 개신교 영화 프로덕션에서 만드는 선교 목적의 종교색이 뚜렷한 영화들을 영미권에서 'Christian-themed film'이라는 용어로 분류하기도 한다.
- 43) 일반적으로 할리우드 영화의 평균 제작비는 1억 달러이며, 블록버스터의 경우 약 1억5천만 달러로 추정된다.

[https://stephenfollows.com/how-movies-make-money-hollywood-blockbusters/\(Film data and education\)](https://stephenfollows.com/how-movies-make-money-hollywood-blockbusters/(Film+data+and+education))

영화 제작에 뛰어들었고, 영적 주제를 다루는 영화의 제작과 배급을 별도로 맡을 자회사를 설립했다. 20세기 폭스사는 ‘페이스 폭스’(Faith Fox)를 소니 픽처스는 ‘어펌 필름’(Affirm Film)⁴⁴⁾과 ‘Provident Films’를, 디즈니는 ‘월든 미디어(Walden Media)’를 설립했다. 메이저 영화사들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 자본 그리고 영향력을 통해 제작되기 시작한 작품들은 이 분야 영화 제작에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우선 스튜디오의 축적된 기술력으로 작품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며 안정된 배급망을 확보하여 보다 많은 스크린을 통해 상영되었다. 이는 그동안 종교 영화가 천편일률적인 스토리와 뻔한 결말을 통해 대체로 신자인 관객들을 대상으로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은 특정한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개봉되었던 관행을 깨뜨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작 환경의 변화로 인해 영적 주제를 다루는 작품들은 이전보다 탄탄한 스토리텔링과 다양한 장르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큰 폭으로 진화했다. 예를 들어, 소니 픽처스의 자회사인 어펌필름의 최근작 <부활(Risen)>(2016, 케빈 레이놀즈) 같은 영화는 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본과 고난도의 기술이 들어간 작품으로⁴⁵⁾ 그동안 소규모 종교영화제작사에서는 엄두를 내기 힘들었던 작품이다.⁴⁶⁾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의 자회사들이 보다 포괄적인 영성을 주제로 지명도 있는 배우와 감독을 끌어들이면서 양질의 작품들을 제작해오는 동안,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소규모 종교 영화를 만들어왔던 독립프로덕션들의 작품제작 양상에도 변화의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저예산에 자체 배급망 제작방식이긴 하지만 이전보다 ‘종교적 정체성’이 느슨해

44) 이런 흐름을 주도한 영화제작사는 어펌필름이다. 올해로 창사 10년을 맞이한 이 영화사는 <부활(Risen)>, <미라클 프롬 헤븐>, <워룸(War room)>, <사랑의 기적(Fireproof)>(알렉스 켄드릭, 2008) 등의 영화를 제작했다.

45) 영화 <부활>의 예산은 약 2천만 달러인데 소규모 독립영화프로덕션에서 제작하는 영화의 평균 제작비는 50만 달러에서 백만 달러 정도의 규모이다.

46) 제임스 러셀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산업적 분석을 통해 이들 제작 배급사들이 생산해내는 작품들이 외면상으로는 기존의 소규모 독립 종교 영화 제작사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상은 할리우드 대형영화사의 매우 조심스럽고 정교한 손길에 의해 발전되고 다듬어진 일종의 영화 ‘브랜드(brand)’라고 지적했다. James Russell, “Evangelical Audiences and “Hollywood” Film: Promoting Fireproof (2008)”, *Journal of American Studies*, Vol. 44, No. 2 (May 2010), pp. 391-407.

진 영화들이 다수 제작되고 있다. 예를 들어, '퓨어 플렉스' 같은 영화사는⁴⁷⁾ <믿음의 승부(Facing the Giants, 2006, 알렉스 켄드릭), <용기와 구원(Courageous, 2010, 알렉스 켄드릭)>, <신은 죽지 않았다 1(God's Not Dead)> (2014)⁴⁸⁾ 등의 작품들을 제작했는데 이전 영화들처럼 종교적 주제를 끌어내기 위한 억지스러운 구성이나 신에 대한 찬양 일색의 '선교용' 영화를 벗어나 다양한 장르 변주와 스토리텔링을 통해 비신자 관객을 확보하기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성공으로 촉발된 제작 방식의 변화는 약 십여 년이 지난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집중적으로 그 성과가 눈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2014년 한 해에만 <천국에 다녀온 소년>(2014), <선 오브 갓>(2014, 크리스토퍼 스펜서), <세컨 커밍>(2014, 데이비 터커 그린)⁴⁹⁾, <노아>(2014, 대런 애러노프스키), 그리고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2014, 리들리 스코트)같은 다양한 작품들이 제작되어 전세계에 개봉되었다.

영적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 급증하면서 가져온 산업적 변화로 인해 이 분야 영화 제작 인력의 면면도 바뀌었다. 엠마 왓슨, 조셉 파인즈, 제니퍼 가너와 이완 맥그리거, 르네 젤위거 등 안정된 연기력과 스타성을 갖춘 배우들은 물론, 리들리 스코트, 대런 애러노프스키, 마틴 스코세지 같은 감독

47) 퓨어플렉스는 2003년 설립되었으며 자체 배급사를 소유하고 있다. 이 영화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드라마 액션 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가족들이 모두 함께 볼 수 있는 ‘복음적 영화(family-friendly, Christian film)’를 80여 편 제작”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퓨어플렉스 홈페이지 (<https://pureflix.com/>).

48) 2014년 제작한 <신은 죽지 않았다 1>의 제작예산은 약 2백만 달러인데 미국 극장가에 흥행돌풍을 일으키며 투자 대비 수익률 2,617%를 기록했다. 1편은 대학 강의실에서의 무신론 논쟁을 담고 있으며, 2편은 무신론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다루고 있다. 강주화, 「'신은 죽지 않았다' 제작사 퓨어플렉스에 시선집중」, 『국민일보』, 2016.04.1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542985&code=61221211&sid1=po>

49) '재림'을 뜻하는 'Second Coming'을 제목으로 한 이 영화는 영국에서 제작된 영화이다. 이 영화의 주연을 맡은 영국 배우 이드리스 엘버(Idris Elba)는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BBC 드라마 <Luther>(2010)의 형사 루터 역으로 2012년 골든글로브 최우수 남자연기상을 수상했고, <정글북>과 <주토피아>의 주연 목소리 연기 및 <스타트랙>, <토르>, <어벤저스>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도 자주 출연한 지명도 있는 배우이다. 최근에는 흑인 최초의 <007 시리즈> 본드 역으로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들도 이 분야 영화 제작에 합류했다. 이미 <글라디에이터>(2000)와 <프로 메테우스>(2012) 등의 작품으로 거장의 반열에 오른 스코트 감독은 구약성경 속 모세의 이야기를 다룬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에 이어 차기작으로 구약의 다윗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할 예정이다.⁵⁰⁾ 아카데미상 수상작 <블랙 스완>(2010)의 감독 대런 애러노프스키는 <노아>를 연출했고, 스폰서지와 멜 김슨이 2016년에 각각 <사일런스>와 <핵소 고지>를 선보였다. 전세계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감독들만큼 이들의 작품에도 크리스찬 베일, 러셀 크로우, 앤쏘니 홉킨스, 앤드류 가필드 등 할리우드에서 내로라하는 배우들이 출연했다.⁵¹⁾

지금까지 할리우드에서 영적 주제를 다룬 영화의 제작이 어떤 식으로 진화되어 왔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2010년대 이후 제작된 이 영화들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이후 변화된 제작 환경과 관객의 기대를 통해 현재 할리우드 영화산업에 새로운 좌표를 형성하고 있다. 종교영화를 포함하여 영성을 폭넓게 다룬 영화들이 근래 들어 대거 등장한 것을 결코 우연으로 여길 수만은 없다. 최근 할리우드에서 급증하는 이들 작품들에 드러나는 영적주제에 함의된 성향과 각각의 구현 방식에 대한 보다 근원적이고 통합적인 탐색이 필요해지는 시점이다.

3. 2010년대 이후 영적 주제 영화의 특성

본 연구의 소재가 되는 영화들, 즉 2010년대 이후 할리우드에서 제작, 발표되고 있는 영적주제를 다루는 영화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영적 주제를 표현하고 있으나 다음 몇 가지 경향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다수의 작품들이 장르적 특성을 잘 활용한 대중적인 내러티브를 구사하고 있

50) Justin Kroll, "Fox, Scott Free and Chernin Reteam on Biblical King David Film," *Variety*, July 8, 2014. <http://variety.com/2014/film/news/fox-scott-free-and-cher-nin-reteam-on-biblical-king-david-film-exclusive-1201258761/>

51) 2017년 2월에 국내 개봉된 두 작품 <핵소 고지>와 <사일런스> 이외에도 5월에는 이완 맥그리거가 주연한 <광야 40일>(Last Days in the Desert, 로드리고 가르시아 감독, 2017)이 개봉되었으며, 하반기에는 르네 켈러와 그렉 키니어 주연 <Same Kind of Different as Me>(마이클 카니, 2017)가 개봉될 예정이다.

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멜 깁슨 감독이 연출한 <핵소 고지>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전쟁영화의 장르적 관습에 충실한 영화이며 <부활(Risen)>은 예수 부활 사건의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추리수사극 장르의 영화이다. <노아>는 판타지 블록버스터 영화이며,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은 액션, 어드벤처, 드라마 장르에 속하며 스티븐 세지의 <사일런스>도 역사서사극 장르에 속한다. 이들 작품 중 몇몇은 성경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이전에 성경을 다룬 영화들과는 달리 기발한 상상력과 장르영화의 특성을 잘 살린 대중적인 내러티브 구조로 관객의 흥미를 유발시킨다. <부활>의 경우 '부활 전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독특한 발상으로 제3자인 로마군인의 관점에서 부활사건을 추리해나가는 수사극 장르로서 숨 돌릴 틈 없는 빠른 전개를 통해 예수 사건을 보는 신선한 관점을 제시한다. <노아>는 구약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으나 성경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전개시키며 이로 인해 관객의 호불호가 강하게 갈라지기도 했다.⁵²⁾ 스코트 감독의 <엑소더스>의 경우, 구약의 탈출기 사건을 주요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예언자 모세와 이집트 파라오의 대립을 '리더십'의 관점에서 바라본 작품이다. 이완 맥그리거 주연의 <광야의 40일>은 예수의 알려지지 않았던 광야 생활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한 가족과 예수의 만남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성경 자체가 제공하는 강렬한 서사와 풍부한 콘텐츠를 충실히 활용하면서도 장르영화의 특징을 잘 살려 대중성을 확보하는 경향은 2000년대 이전의 종교 영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사실, 성경 콘텐츠는 영화사에서 신자 뿐 아니라 일반 대중의 호기심과 관심을 자극하는 훌륭한 '이야기 거리'였다. 2004년 개봉되어 대성공을 거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경우, 이 영화를 관람한 1,880명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응답자의 30.5%가 "이야기 자체에 대한 흥미(interest in the story)"를 이유로 꼽았다.⁵³⁾ 이는 상당한

52)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 영화가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로 인해 흥행성적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 영화에서 노아는 야훼를 'Creator(창조주)'라고 부른다. 기존의 성경 영화처럼 God(신, 하느님)이라던가 Lord(주님)과 같은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53) 이 영화를 보게 된 이유로 가장 많은 수의 응답자인 46.2%는 "영적인 성장 (for

숫자의 관객이 종교적인 동기 못지않게 ‘예수가 죽기 12시간 전의 이야기’ 자체에 커다란 관심을 가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그리스도교 문명을 2천 년간 누린 서구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매우 낮익고 친숙한 내러티브이며 이런 ‘이야기의 힘’이 다수의 비신자 관객을 끌었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대중적 내러티브의 구사와 관련하여 이 작품들을 볼 때 주목할 점은 대다수의 영화들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라는 점이다. <핵소 고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의무병으로 지원 입대하여 75명의 생명을 구했고 ‘명예의 훈장’(Medal of Honor)을 수여받은 실존 인물 데스몬드 도스⁵⁴⁾의 이야기를 극화한 영화이다. <미라클 프롬 헤븐>(2016)⁵⁵⁾은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한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을 바탕으로 한 영화이며, <사일런스>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지만 소설자체가 17세기 포르투갈 예수회 사제들이 실제로 일본에서 선교했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한 작품이다. 다큐멘터리가 아닌 허구 영화임에도 영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많은 작품들이 왜 실존 인물이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것일까? 그 영화 속에 재현된 ‘역사적 진실성’을 통해 관객들이 그 이야기를 실제로 일어난 일로 믿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묘사된 인간의 상황이 인위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울 경우, 관객은 쉽사리 감정이입을 하기 어렵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실성’에 바탕하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 관객은 쉽게 ‘몰입’할 수 있고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⁵⁶⁾. 차영선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대한 관객의 폭발적인 호응의 이유를 고증적 리얼리즘이 보여주는 ‘역사적 진실성과 신빙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⁵⁷⁾ 이 영화는

personal spiritual growth)”라고 대답했다. William J. Brown, John D. Keeler & Terrence R. Lindvall, “Audience Response to The Passion of the Christ,” *Journal of Media and Religion*, 6:2, 2007, p.101.

54) 데스몬드 도스(1919-2006)

55) 이 영화는 팔의 병을 고치려고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니 컬럼비아 픽처스 배급으로 미국 전역에 2016년 개봉되었다. 미국에서 2016년 개봉된 종교 영화 중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하며 제작비의 4배를 뛰어넘는 흥행기록을 세우며 화제를 모았다.

56) 마이클 티어노, 『스토리텔링의 비밀: 아리스토텔레스와 영화』, 김윤철 역, 아우라, 2008, 209쪽.

57) 이 논문에서 차영선은 예수 일생에 대한 기존 종교 분화 콘텐츠들의 상투적 접근방식이 다큐멘터리였다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스토리에 생기를 불어

지금은 사어가 된 아랍어와 라틴어를 사용하고 수난의 생생한 재연을 실현 하면서 예수가 현존했던 당대의 분위기를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로 실감나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며 극사실주의를 추구했다. 같은 맥락에서 스킨세지 감독은 <사일런스>에서 등장인물들의 복장부터 배경, 자연환경까지 17세기 일본 나가사키 지역을 완벽하게 재현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들었다. 영화연출가들은 삶의 가능성을 가설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이미지와 이야기를 사용한다. 영화에서, “모든 카메라 앵글은 의미가 있으며, 모든 의상이 의미”⁵⁸⁾가 있다. 따라서 영화에 ‘리얼리티’를 부여하는 것은 영화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생명력과 설득력을 주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영화들이 그동안 할리우드에서 재현하던 전형적인 영웅이 아닌 다른 유형의 영웅 캐릭터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작품에서는 할리우드의 <수퍼맨>을 위시한 많은 ‘***맨’ 시리즈에서 전형적으로 그려내던 수퍼 히어로⁵⁹⁾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주인공들은 거의 ‘반영웅(anti-hero)’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다. <핵소 고지>⁶⁰⁾의 주인공 테스몬드 도스는 할리우드 전쟁 영화 장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인공 캐릭터가 결코 아니다.⁶¹⁾ 이 영화에서 도스의 동료로 등장했다가 죽게 되는 ‘스미티’가 오히려 전형적인 영웅 캐릭터에 가깝다. 스미티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져 고아원에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후에

넣는 현실주의(극사실주의)를 미디어(매체)에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고증적 표현의 극치는 이 영화를 역사적 사실보다 더 사실적이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재현된 ‘역사적 진실’, 『인문콘텐츠』, Vol.- No.19, 2010, 237-244쪽.

58) 로버트 존스톤, 앞의 책, 136쪽.

59) 한창완은 할리우드 수퍼히어로의 특징을 초능력 및 약점의 보유, 선(善)과 악(惡)의 재개념화, 자기정체성 찾기, 조력자의 존재 등으로 꼽는다. 한창완 『수퍼히어로』,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12-20쪽.

60) 멜 김슨은 수퍼 히어로 영화를 증오하는 배우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2016년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을 본 후, 2억 5천만 달러짜리 스펀지라며 일갈했었다는 보도가 있다. 멜 김슨이 테스몬드 도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겠다고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진정한 슈퍼히어로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였다고 말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핵소 고지,” http://magazine2.movie.daum.net/movie/40458_RUN&GUN.

61) Matthews, Joshua, “Hacksaw Ridge: A Movie Review”(2017). Faculty Work: Comprehensive List. 655. http://digitalcollections.dordt.edu/faculty_work/655

입대, 훈련과정에서 다른 동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며 도스와 경쟁관계를 이룬다. 스미티는 총을 만지는 훈련 자체를 거부하는 도스를 처음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부대의 모든 대원들이 도스를 구타하고 학대할 때 의외로 도스를 위협에서 구해주는 인물이다. 또한 핵소 고지에 올라가서도 부대원들이 겁에 질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대담하게 공격하면서 가장 많은 일본군을 사살하는 전투기술을 보여준다. 폭력사용을 거부하는 도스와는 완전히 반대 입장에서 있지만, 일본군에게 죽을 뻔한 위기를 도스가 몸으로 막아준 덕분에 목숨을 건진 후부터는 도스와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된다. 결국 총을 소지하지 않은 도스가 더 많은 대원을 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엄호하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이에 비해 도스는 영화가 시작되고 중반이 지나 핵소 고지에서 첫 번째 전투가 끝날 때까지도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만한 특별한 활약상을 보여주지 않는다. 핵소 고지에 올라간 부대원들은 처참한 실패를 겪으며 결국 고지에서 퇴각하는데 스미티를 포함한 대다수 동료들의 참혹한 죽음 앞에서 도스는 고지를 내려가지 못하고 스미티 주검 앞에서 절규한다. 그가 실질적으로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은 이 좌절의 순간부터이다. 모든 살아남은 부대원들은 고지 아래로 후퇴한 상황에서 총 한자루 없이 이제부터 도스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영화는 불가능한 미션 앞에 도전하는 현대의 영웅상을 도스를 통해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몇 명을 살려냈느냐가 아닐 것이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타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결심하는 순간부터 영화의 반전이 시작된다. 영화는 그 과정을 가감 없이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아무런 무기 없이 치열한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부대원을 구해내는 도스의 행위는 할리우드의 전형적인 영웅상을 탈피한 것이다.

임정식은 현대 스포츠영웅에 대한 연구에서 현대 영웅은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고귀한 혈통을 갖고 태어난 상층영웅도 아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과 운명에 끊임없이 도전한다”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그들은 “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내면의 성장과 자아발견을 이루어내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는다.”⁶²⁾ 다시 말하면, 현대의 영웅은 혈통이나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의

62) 임정식, 「스포츠영화와 영웅 신화의 인물 유형 비교」, 『문학과 영상』, 제15권

해 진정한 영웅성을 획득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런 영웅은 때로는 '승자'가 아닌, '패자'로 표현되기도 한다. 즉 “승리한 패자”⁶³⁾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스콜세지의 영화 <사일런스>에서 포르투갈 사제 로드리게스 역시 실존의 고뇌를 통해 '순교'가 아닌 '배교'를 선택하면서 전형적인 영웅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승리한 패자'로 묘사되며, 고통과 시련을 통한 그의 '내면의 성장'이 영화의 주요 관심사가 된다.

마지막으로, 영성을 다루고 있는 다수 영화들의 주인공들은 끊임없이 절대적 존재자의 실존을 의심하고 '질문하는 존재'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에서 모세는 신의 부름에 계속 저항하며 질문하고 의심한다. <부활(Risen)>에서 로마 호민관 클라비우스는 예수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끈질기게 '진실'을 찾아 헤맨다. <핵소 고지>에서 주인공 도스는 고지 위로 올라갔으나 일본군의 공격으로 포화 속에서 죽어가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제가 어찌길 바라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라고 묻는다. 작품의 주제가 절대자에 대한 질문 그 자체가 되어 주인공의 의심과 질문이 가장 심층적으로 드러나는 영화는 <사일런스>이다. 이 영화에서 로드리게스 신부는 배교를 강요당하며 가난하고 힘없는 부락민들이 잔인하게 고문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하며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실건가요?”라고 신의 응답을 갈구한다.

앞서 언급한 신학자 톨리히는 진지하고 심각한 의심(doubt)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그는 설교집 <새로운 존재>에서 “진리에 대한 모든 심각한 회의나 절망의 밑바닥에는 아직도 진리에 대한 열정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하며 “진리에 대한 불안을 완화시키려는 사람들에게 너무 쉽사리 양보해서는 안된다”⁶⁴⁾고 지적한다. 또 “참으로 자기 자신의 진리가 될 수 없는 진리에는 교회나 당파, 혹은 부모 때부터의 전통이든 간에 굴복당하지 말라”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진지한 회의주의자인) 빌라도와 함께 가십시오”⁶⁵⁾

4호, 2014.12, 993쪽.

63) 위의 논문, 994쪽.

64) 폴 톨리히, 『새로운 존재』, 강원용 역, 현대신서, 1970, 108-109쪽.

65) 위의 책 109쪽.

라고까지 말한다. 탈리히가 진지한 의심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이유는 “하느님은 솔직한 의심과 질문 속에 이미 함께 계시며, 진리는 때로 의심의 골짜기를 지나서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⁶⁶⁾ <사일런스>의 로드 리게스 신부는 타인의 고통에 눈을 감고 자아를 지킬 것인가, 배교를 통해 고통을 멈추게 할 것인가를 두고 끊임없이 갈등하며 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배교나 순교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밤낮으로 간청하고 질문하는 그에게 신의 응답은 쉽사리 찾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답을 듣느냐 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절대자의 존재에 대해 영화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행위 자체이다. 신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왜 침묵하는가? 이 작품들은 이러한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하면서 신앙 유무에 관계없이 우리 시대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생각할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를 던져준다.

V. 나가며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할리우드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영성을 다루는 영화(faith-based film)’가 함의하는 바를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작품이 기존 종교 영화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관객들의 공감대를 끌어내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교나 신앙을 넘어선 보편적인 ‘신념’이나 ‘가치’가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아울러 이들 영화가 보여주는 영적 주제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는 이 영화들이 공유하고 있는 바에 대하여, 더불어 일정한 공유지대를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각각을 가르고 있는 서로 다른 결들에 대하여 묻는 작업이기도 했으며, ‘영적 주제를 다루는 영화’라는 범주 안에서 이들 작품들이 가지는 좌표를 탐색해보는 일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이 작품들은 관객에게 친숙한 대중적인 내러티브를 통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실존인물’ 혹은 ‘실화’같은 리얼리티를 영화

66) 박만, 『현대신학이야기』, 살림, 2004, 36쪽. 재인용.

속에 재현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성과 신빙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들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할리우드 슈퍼 히어로의 전형성을 탈피하여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승리한 패자'를 보여준다. 이들의 자의식은 끊임없이 초월자에게 '질문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 영화를 연출한 감독들은 한 개인의 삶을 넘어 보편적인 인간의 존재를 투영함으로써 초월, 숭고, 성스러움, 구원 같은 거대하고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듯하다. 이를 위한 이들의 전략은 일종의 '당의정(糖衣錠)'으로 보여진다. 익숙하지 않은 냄새와 쓴맛 때문에 사람들은 약에 좀처럼 다가가지 않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쓴 약에 설탕과 단맛을 입혀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다. 같은 논리로 '초월자의 존재' 같은 피하고 싶은 주제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는 '보편적인 인생 문제'라는 당의로 감싸면, 그것을 삼켰을 때 우리 인생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만드는 것이다.⁶⁷⁾

이렇게 이 영화들이 보여주는 특징과 의미를 간략히 짚어 보았다면, 이제 "왜, 지금, 이런 영화들인가?"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 작품들의 이같은 시도가 가지는 의미, 특히 이 시점에서 할리우드가 영성을 다룬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앞서 설명했듯이 엘리야데는 신이 죽은 것으로 여겨지는 문화 안에서 반종교적인 인간이나 사회에 의한 모든 저항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무의식 속에 종교적 차원이 살아남을 수 있음을 영화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문화, 다종교시대가 된 오늘날, 종교와 문화의 관계는 그 의미가 더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진은 앞서 설명한 티리히의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라는 тезис를 발전시켜 현대 문화를 알아야 현대 종교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성 종교의 약화가 곧 현대인의 '종교성'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기성종교가 채워주지 못하는 인간의 종교적 욕구가 문화적으로 폭발되면서 인간의 자기초월 욕구로서의 종교성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⁶⁸⁾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영화는 대중에게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진 매체이며, 극장은 현대인

67) 김승철, 「엔도 슈사쿠와 건너는 깊은 강(1): 흔적과 아픔의 문학(1)」, 『기독교사상』, 2015, 188-198쪽.

68) 김진, 「영상문화에 대한 종교신학적 이해」, 『한국문화신학회』, 2000, 199쪽.

의 놀이터이자 소통의 공간이며 문화가 생산되거나 소비되는 실천의 장,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 체험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에서 다룬 작품들은 현대 관객의 ‘실존’과 ‘근원적 존재’에 대한 욕구를 자연스럽게 드러내주고 있다. 즉, 현대 과학과 지식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관객은 여전히 영적회복과 인간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으며, 대중문화 특히 영화를 통해 이런 욕구가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영성’과 ‘영화’와의 상호작용은 결국 성스러움이 세속적인 것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며 성스러움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대중문화와 종교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리든은 ‘종교와 대중문화 간에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한다.⁶⁹⁾ ‘대화’를 통해 두 영역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며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가 처한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환경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영화는 종교의 대체물이 아니며 종교와 혼합될 수도 없다. 그러나 예술은 삶을 형상화하기 때문에 반 데르 레우후가 말한 것처럼 영원에서 만나 교차하는 영화와 종교의 평행선은 서로 사색과 대화를 필요로 한다.⁷⁰⁾ 이제 종교와 영화는 대화를 나누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 대중문화의 영역 중에서 특히 영화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경험과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잠재적인 원천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 글의 한계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영성’의 개념을 개별 영화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영적 주제를 다루는 작품들이 최근 할리우드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흐름에 주목하여 이런 주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맥락을 찾아보는 데 집중하였고, 이에 따라 각각의 영화에서 이 주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아쉽지만 이들 영화들이 이러한 영적 주제를 다양한 전략을 통해 구현할 때 발견되는 가능성과 한계점에 대한 정교한 분석은 차후의 과제로 돌리고자 한다.

69) John C. Lyden, “Definitions: What is the subject matter of “religion and popular culture?” in John C. Lyden and Eric Michael Mazur, eds. *The Routledge Companion to Religion and Popular Culture*, 2015, p.16. (e-Book)

70) 반 데르 레우후, 앞의 책, 145쪽.

■ 참고문헌

- M. 엘리아데, 『성과 속』, 이은봉 역, 한길사, 2014.
- 강주화, 「신은 죽지 않았다」 제작사 퓨어플렉스에 시선집중, 『국민일보』, 2016. 4.18.
- 김 진, 「영상문화에 대한 종교신학적 이해」, 『한국문화신학회』, 2000.
- 김승철, 「엔도 슈사쿠와 걷는 깊은 강(1): 흔적과 아픔의 문학(1)」, 『기독교사상』, 2015, 188-198쪽.
- 도니 조하·이안 마셜, 『영성지능 SQ』, 조혜정 역, 룩스, 2000.
- 로버트 존스톤, 『영화와 영성(Reel Spirituality)』, 전의우 역, 서울: IVP, 2003.
- 마이클 티어노, 『스토리텔링의 비밀: 아리스토텔레스와 영화』, 김윤철 역, 아우라, 2008.
- 박 만, 『현대신학이야기』, 살림, 2004.
- 박정민, 「테렌스 맬릭 영화의 초월적 스타일 연구」, 『아시아영화연구』 7권 2호(2015.02).
- 반 데르 레우후, 『종교와 예술: 聖과 美의 경계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윤이흠 역, 열화당, 1996.
- 신승환, 「현대철학에서 영성이해의 가능성」, 『가톨릭철학』 Vol. 25, 2015.
- 안토니오 스파다로, 「마틴 스콜세지와 인터뷰 (원문 <SILENCE>. INTERVISTA A MARTIN SCORSESE)」 김숙희 역, 『치빌타 카톨리카(La Civiltà Cattolica)』 한국어판, 2017.3.2.발간. e-Book,
- 이창익, 「예술이라는 종교의 미디어: 반 데르 레이우의 예술신학」, 『종교와 문화』, 27권0호, 2014.
- 임영금, 「폴 틸리히의 문화의 신학」, 『문화와 신학』 제4집, 2009.
- 임정식, 「스포츠영화와 영웅 신화의 인물 유형 비교」, 『문화와 영상』, 제15권 4호, 2014.12.
- 차영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재현된 ‘역사적 진실」, 『인문콘텐츠』, Vol. 5, No.19, 2010.
- 폴 틸리히, 『새로운 존재』, 강원용 역, 현대신서, 1970.
- _____, 『문화신학』, 남정우 역, 대한기독교서회, 2002.

한창완 『수퍼히어로』,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Brown, William J. Keeler, John D. & Terrence R. Lindvall, "Audience Response to The Passion of the Christ," *Journal of Media and Religion*, 6:2, 2007.

Colburn, Randall. "Can the New Wave of the faith-based filmmaking transcend propaganda?" *AV Club*.

Kroll, Justin, "Fox, Scott Free and Chernin Reteam on Biblical King David Film," *Variety*, July 8, 2014.

Lyden, John C. and Mazur, Eric Michael eds. *The Routledge Companion to Religion and Popular Culture*, Routledge, 2015.

Matthews, Joshua, "Hacksaw Ridge: A Movie Review," Faculty Work: Comprehensive List. 655. 2017.

Russell, James, "Evangelical Audiences and "Hollywood" Film: Promoting Fireproof (2008)", *Journal of American Studies*, Vol. 44, No. 2., 2010.

Schrader, Paul, *Transcendental Styl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New York: Da Capo), 1972.

<http://variety.com/2014/film/news/fox-scott-free-and-chernin-reteam-on-biblical-king-david-film-exclusive-1201258761/>(검색일 2017.05.02.)

<http://magazine2.movie.daum.net/movie/40458,RUN&GUN.>(검색일 2017.04.27.)

<http://magazine2.movie.daum.net/movie/40458,RUN&GUN.>(검색일 2017.05.0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542985&code=61221211&sid1=po>(검색일 2017.05.02.)

[https://stephenfollows.com/how-movies-make-money-hollywood-blockbusters/\(Film data and education\)](https://stephenfollows.com/how-movies-make-money-hollywood-blockbusters/(Film%20data%20and%20education))(검색일 2017.04.25.)

http://digitalcollections.dordt.edu/faculty_work/655(검색일 2017.04.28.)

<http://www.avclub.com/article/can-new-wave-faith-based-filmmaking-transcend-prop-234051>. AV Club.(검색일 2017.04.29.)

[http://laciviltacattolica.kr/0201-1/\(e-Book\)](http://laciviltacattolica.kr/0201-1/(e-Book)), 검색일 2017.05.07.)

<http://www.avclub.com/article/can-new-wave-faith-based-filmmaking-transcend-prop-234051>(검색일 2017.04.03.)

❖ ABSTRACT

Faith beyond Religion: A Study on the Faith-based films after 2010s in Hollywood

Ahn, SooJeong

This paper studies the recent surge in the number of faith-based films in Hollywood, with the aim to explore the context and implications of this new trend. By us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study of the Tilich and Van der Leeuw, who have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culture and art, this article discusses the meaning of the spiritual theme in the film. A couple of common points can be found among the faith-based films that have been produced since the 2010s. While these films attempt a universal approach to the fundamental theme of spirituality through popular narratives familiar to the audience, they also stress 'historical truthfulness and credibility' by representing the reality, such as a featuring real person or a true story in the film. The main characters are depicted as "victorious losers" that are distinguished from the typical Hollywood superhero and the films repeatedly show the human being constantly 'asking' questions to God. By analyzing these characteristics, the paper demonstrates that recent Hollywood faith-based films have successfully differentiated themselves from existing religious films while symbolizing the universal beliefs and values beyond the religious message so as to attract more audiences to this field. The paper also suggests that despite the advances in modern science and knowledge, the public will always yearn for a spiritual recovery and salvation through the film medium, serving as a potential source that provides an outlet for spiritual experience.

Key Words : Hollywood, faith-based film, spirituality, religious film, realism,
popular narrative

■ 논문접수일 : 2017. 5. 10

■ 심사완료일 : 2017. 5. 31

■ 게재확정일 : 2017. 6. 2